

불교계 올 대북사업

핵 냉기류 속 지원활동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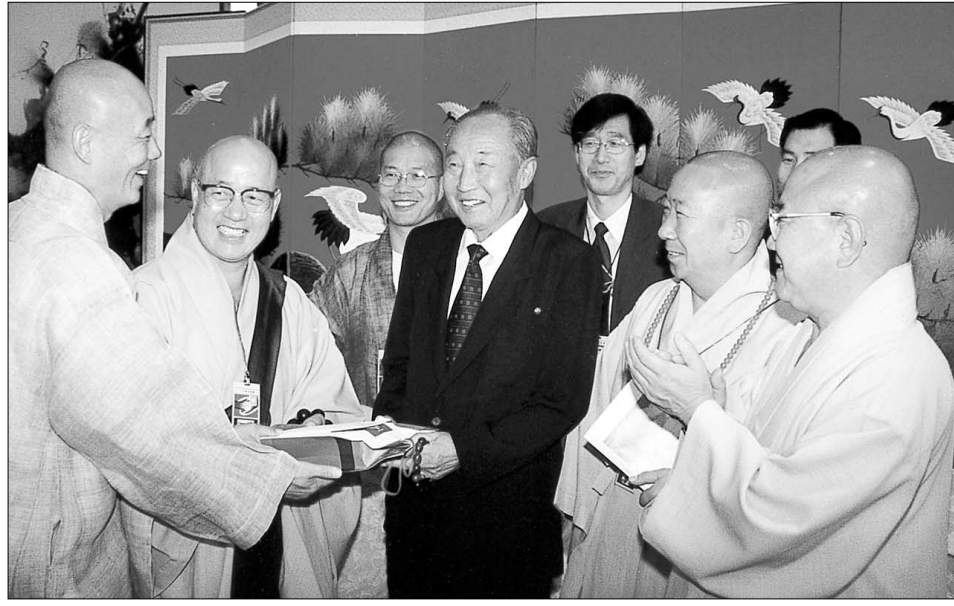
“불교 사회복지 마당 넓힌다”

- 1면에서 계속

불교계에서 대북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큰 단체는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타),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정련), 한국 불교종단협의회(회장 정대) 등 3곳이다. 이들 단체에서는 지난 해까지 신계사지 지표 조사, 단청지원 추진, 생필품 지원 등을 주요사업으로 펼쳐왔다. 그러나 올해는 북한 핵 문제로 한반도 정세가 냉각기류를 타고 있어 상반기

정이다. 평북협은 이 외에도 사리원 금강국수 공장에 15만톤의 밀가루를 지원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법타스님은 “단청봉사 등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어서 최근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정부가 문을 닫아버리면 전면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8·15민족통일대회 참석차 방한한 박태화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앞줄 가운데)이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정련스님(앞줄 왼쪽 두번째)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있다.

회답을 가졌다.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평북협과 절충이 필요한 대목이다.

조계종 사회부장 양산스님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시기는 조절될 수 있으나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북한에서도 핵 문제에 대한 불신을 씻어 낼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단협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한 통일부에 2003년

사업계획을 올리지 못해 남북협력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불교계 한 관계자는 “작년 종단협 상임이사회 때 불교계 대북 창구를 종단협으로 단일화하기로 결정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아 주요 종단들의 상호협력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올 2월에 예정된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인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금강국수공장 밀가루 15만톤 공급 추진

신계사지 지표조사·통일교육자료 발간

“한반도 정세 따라 시기 조절 될 가능성”

에는 전망 내지는 속도 조절이 예상된다.

평북협은 올해 최대의 대북지원사업으로 단청봉사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 해 조선불교도연맹과 단청 지원을 협의했던 평북협은 3월 중 평양 법운암 단청봉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단청 기술자 5명과 입재식에 참석할 평북협 관계자 10여명이 방북한다. 봉사가 끝나면 조물련 측이 지원 요청을 한 60여개 사찰 중 30여개 사찰도 실시할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지난 해까지 계획 단계에 있던 사업들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5월 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발굴단 방북 예정인 신계사 복원봉사, 조계종 종단 지도자 방북, 통일교육 자료집 발간, 후원회 조직 구성, 소식지 ‘통일정보’ 제작 및 발송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평북협과 별도로 북한 단청봉사를 계획해왔던 민주본은 이와 관련 작년 12월 북경에서 조물련과

‘깨달은 자의 복제, 깨달음까지 복제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구도의 과정은 어떤 의미이며, 불가능하다면 복제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지난해 말 유사 종교집단인 ‘라엘리언 무브먼트(Raelian Movement)’가 설립한 인간복제 회사인 미국 클로네이드사의 복제인간 탄생 주장에 대해 종교계와 과학계, 각국 정부가 비윤리성을 비난하고 나선 가운데 이에 대한 불교적 관점이 어떤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 불교계는 학자들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는 등 인간복제에 대한 명쾌한 불교적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 종교계의 반응** = 로마 교황청은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윤리원칙이 결여된 잔인한 정신상태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고, 이슬람교의 고위 성직자는 “복제인간이 자연법칙을 혼란스럽게 하고 인간 미래의 혼돈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러시아 정교회도 “인간복제는 전 세계적인 도덕위기를 촉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가톨릭 정진석 대주교는 “생명공학의 성과를 잘못 사용할 경우 인류에게 크나큰 재앙이 되는 만큼 분별력과 지혜가 요청된다”고 경고했다.

▲**불교학자들의 견해** = 조계종 중정예경

“자연 법칙에 위배”

“교리상 문제 없다”

‘인간복제’ 불교학자 견해 ‘신중론’

실장 원철스님은 이 문제에 대한 중정 법전스님의 견해를 밝혀 달라는 요청에 대해 “교리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입장이 정리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언급은 적절치

과학기술부 산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인 김용정 박사(동국대 명예교수, 과학사상 편집장)는 “경전 어디에도 생명의 인위적 조작에 대한 언급이 없어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 힘

하다”고 전제하면서도 “현 단계에서의 인간복제는 명확한 목적과 과학적 입증없이 증생의 무명망상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철 교수(동국대)는 “복제된 인간의 몸은 색(色·물질)에 불과하며, 진정한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는 식(識·자아)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복제인간을 ‘식’을 갖춘 개체로 본다면 업이나 윤회사상으로 볼 때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며, 따라서 교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복제도 자연의 섭리로 봐야한다”며 “복제 자체보다는 어떤 목적으로 복제를 하는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호진스님(전 동국대 교수)은 “예를 들어 성철스님의 복제인간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수행의 의미는 없어진다. 힘들어 수행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인간의 역사·사회·문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면서도 “완벽한 복제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끝나지 않은 상태고, 특히 교리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명확한 판단을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아울러 호진스님은 “복제 문제도 인간의 문제인 만큼 불교는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놓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명우 기자

김성철 교수 복제자체 보다 목적이 더 중요

호진 스님 복제도 인간문제, 명쾌한 답 필요

않다”며 견해를 유보했다. 인간복제에 대한 불교계의 불명확한 입장을 가장 명확히 보여 주는 예다.

이런 가운데 학자들도 저마다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어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다만 일치하는 것이 있다면 ‘신에 대한 도전’이라는 기독교적 관점과 불교적 관점은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불교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들다”면서도 “그러나 체세포를 그대로 복제하는 것이나 복제된 아이의 법적 부모가 누구인지 등의 권리문제 등 윤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많고, 또 자연법칙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인간복제는 금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주스님(동국대 교수)은 “부분이 전체고, 전체가 부분이라는 화엄사상이 이 문제를 이론적으로 설명해줄 만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복제된 인간도 하나의 개체임은 분명

봉사자 선진 유럽복지현장 파견 연수

호스피스 봉사·미아찾기사업 등 추진

탁아소 북한 설치·탈북주민 정착 지원

노인들 복지 위해 경로법회 정기 봉행

비롯, 다양한 자원봉사자 교육, 중앙 자원봉사회 결성 운동 등을 펼친다. 특히 연 8회에 걸쳐 호스피스 기본교육과 연 4회의 심화교육, 연 2회의 실습 교육을 실시, 전문 호스피스 봉사자 650명을 배출한다는 목표다.

또한 미아 아동을 가정으로 돌려 보내는 ‘미아찾기 사업’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전개한다. 전국 분말사 조직을 활용한 미아 찾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경찰청 182 미아찾기 센터와 긴밀하게 연계해 미아 관련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고 불자 연애인 및 운동선수들 홍보위원으로 위촉해 사회적 관심을 모은다는 생각이다.

이 밖에도 자비의 연등 배포 사

진각종은 1/4분기 내로 인천 덕화 노인요양원, 대구 보은노인요양원 등 노인 실비요양시설 2곳을 개원할 예정이다.

종지종은 기존에 위탁 받은 복지 시설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복지사업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재가봉사 프로그램 개발하고, 한 사원이 한 복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 배양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승직자와 교도에 대한 사회복지 교육 실시, 각 사원 내 후원회 조직, 자원봉사자 조직 등도 꾸려 나간다. 이외에도 노인복지 강화를 위해 경로법회를 정기적으로 여는 방안 등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강유신 기자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신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02)722-4162, buddhanews.com